

〈특집 : 東유라시아 物품 交易의 現況과 전망〉

조선후기 求質를 통해서 본 조·일간 物품交易의 현황과 특징*

이 승 민**

〈목차〉

- I. 서론
- II. 구무의 시기별 전개과정과 그 특징
- III. 주요 구무품의 교역현황과 그 특징
- IV. 결론

[국문초록]

조선후기 '조선-쓰시마'로 연결되는 특수한 관계 내에서 이루어져 당시 조일관계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교역형태로 '求質'라는 것이 있었다. 구무는 막부로부터 대조선외교와 무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쓰시마가 자국 내에서 특정 물품에 대한 불시의 필요가 발생해 이를 조선 측에 구해달라고 요청하면, 조선에서 이에 대한 사안을 심의해 이루어지는 무역형태였다.

조선후기 구무의 전개양상은 조선후기 조일 국교재개와 함께 쓰시마로부터 구무 요청이 시작되는 '태동기', 1630년대 조일외교 및 무역체제의 정비에 따라 구무가 활성화되는 '활성기', 조일양국 대외정책에 따른 조일관계의 변화와 무역의

*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충북대학교 강사

변화·쇠퇴로 인해 쓰시마로부터 구무 요청이 감소되어 가는 ‘쇠퇴기’의 세 시기로 구분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품목별로는 약재류·금수류·과실류·문방구류·어패류·직물류·피물류·서적류·다기류·의복류·인적자원·약기류·기타에 이르기까지 수백여가지의 다양한 물품의 교역이 이루어졌다.

쓰시마의 구무 요청은 기본적으로는 쓰시마 내의 필요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지만, 그러한 필요에는 쓰시마번주의 保身을 위한 대막부 교섭의 측면을 간과할 수 없었다. 쓰시마는 구무를 통해 조선에 요청한 물품을 참근교대 때 막부에 가져가 쇼군을 비롯한 막부 유력층에게 접대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막부 내에서 자신의 입장을 세울 수 있었고, 또한 그들의 의뢰를 받아 필요한 물품을 대리자의 입장에서 다시 조선에 요청했다 이를 통해 쓰시마는 막부에게 자신이 조선과 교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부각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조선에게는 조일관계의 대리자임을 내세움과 동시에 교린의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교역에서 지극한 편의를 얻고자 했다.

반대로 조선의 입장에서는 구무를 통한 교역은 일정한 정도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쓰시마의 계속된 구무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쓰시마를 매개로 형성된 간접통교체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왜란과 호란을 경험하고 대청관계가 변화하면서 조선에서는 북방의 안전을 우선시하게 되고 그 바탕에는 일본이라는 남변의 안전이 전제가 되어야 했다. 1635년 국서개작사건 이후 쓰시마번주가 막부로부터 대조선외교와 무역에 관한 독점권을 인정받고 외교체제가 정비되어 가면서 쓰시마는 조선정부와 일본막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중간자적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었다. 조선에서는 초기의 왜구문제를 포함해 후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남변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정책 목표를 세우면서 쓰시마를 매개로 형성된 일본과의 간접통교관계를 원활히 이끌어어나가고자 했고,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써 구무를 허가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 주제어

구무, 물품교역, 조선, 쓰시마, 교린, 간접통교

I. 서론

임진왜란으로 단절되었던 조선과 일본 양국의 교류는 1609년에 己酉 約條가 체결된 이후 본격적으로 재개되어 조선에서는 막부와 쓰시마에 각각 通信使와 問慰行을, 쓰시마에서는 왜관으로 年例送使와 差倭를 파견하게 되었다. 이러한 교류는 무역 분야에서도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정기적 교역형태인 進上 및 回謝, 求講, 公·私貿易 외에 비정기적 ‘求貨’라는 것이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만하다.

구무는 조일관계에서 뿐 아니라 동아시아 무역상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특이한 교역형태였다. 구무는 대조선외교와 무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쓰시마가 자국 내에 필요한 물품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면 조선에서 이에 대한 사안을 심의해 이루어지는 무역형태였다.¹⁾ 구무는 ‘조선-쓰시마’로 연결되는 특수한 관계 내에서 이루어져 당시 조일관계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쌀과 기타 물품들의 대부분을 조선과의 무역으로 충당하고 있던 쓰시마는 조선후기 대일무역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세견선의 공무역만으로는 만족할만한 무역량을 채우기 힘들었고, 큰 규제가 없는 사무역이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시마 내외에서 불시에 필요가 발생하는 물품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쓰시마에서는 좀 더 上品의 물품을 확보하거나 공·사무역에서는 취급되지 않는 것들을 구하기 위해 구무라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구무를 통해서만 매우 다양한 물품들이 교역되고 있었다. 쓰시마가 교역을 요청한 물품은 수백여 가지에 달하며 이러한 물

1) 『春官志』 권3, 求講; 求講과 求貨의 차이 및 그 개념에 대해서는 이승민, 「조선후기 對馬島 求貨의 개념 및 실태」, 『한일관계사연구』 36, 2010이 참고 된다.

품들은 쓰시마로 건너가 島內에서 사용되거나 혹은 쓰시마를 경유해 막부 측으로 진상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다.

구무로 거래되는 물품 중에는 공·사무역에서 취급되는 것들도 있었지만, 해당 물품을 취급하는 상인이 없거나 혹은 구하기 힘들어서 구무를 통해서만 교역되는 것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구무는 쓰시마 측에서 필요에 따라 특정 물품을 지목해서 교역을 요청하는 것이어서 회사·구청과 같이 대체물품으로 지급되는 경우는 없었다. 쓰시마로부터 교역 요청이 들어오면 조선에서는 해당 국가기관이 개입하거나 왜관이 위치한 경상도 등에서 자체적으로 물품을 마련하게 하거나, 혹은 상인이 있을 경우 이를 처리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었다. 또한 구무품에 대한 결제는 대일공무역품에 대한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公木이나 公作米에서 計減하거나 별도의 銀貨 결제방식 등으로 처리하게 했기 때문에, 구무는 그 처리유형과 결제방식 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공·사무역과도 연관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구무는 전근대 조선과 일본 양국 경제교류의 또 다른 특징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구무는 외교와 무역 관계에서 매우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조선과 쓰시마 사이에서 이루어진 제3의 무역형태이자 동시에 특수한 형태의 무역으로서 쓰시마의 요청이라는 절대적 필요성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따라서 쓰시마는 구무를 통해 쓰시마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자 동시에 구무를 통해 끊임없이 조선과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쓰시마 측에 유리하게 정치·외교 협상을 이끌어내려고 하였다. 즉 구무는 기본적으로는 쓰시마의 열악한 경제사정과 경제적 욕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지만, 이에 못지않게 외교적·정치적 비중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조선 측으로는 쓰시마를 매개로 형성된 간접통교체제 안에서 쓰시마를 효과적으로 회유·통제하고자 하는 수단의 하나로서 구무를 허락해주고 있었다.

이러한 구무에 대해서는 『倭人求請臚錄』이 영인·국역된 이래 구청과 구무의 차이를 밝혀 구무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자 한 연구²⁾, 매·말·서적·피물·약재·도자기 등 구무를 통해 거래된 특정 물품을 대상으로 구무의 실태를 밝히고자 한 연구³⁾, 그리고 조일무역에서 구무가 차지하는 비중과 위치, 구무의 전반적인 실태와 특징 등을 고찰한 연구⁴⁾ 등이 등장하면서 조일무역의 연구성과가 축적되고 주제의 외연이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본 논문에서는 조선과 일본의 국교재개 이후인 17세기 초반부터 18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구무의 실태와 변화상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구무의 현황을 시기별·물품별로 나누어 첫째 시기에 따른 구무의 양상과 특징을 분석하고, 둘째 구무를 통해 어떠한 물품들이 거래되고 있었는지를 대략적이거나 살피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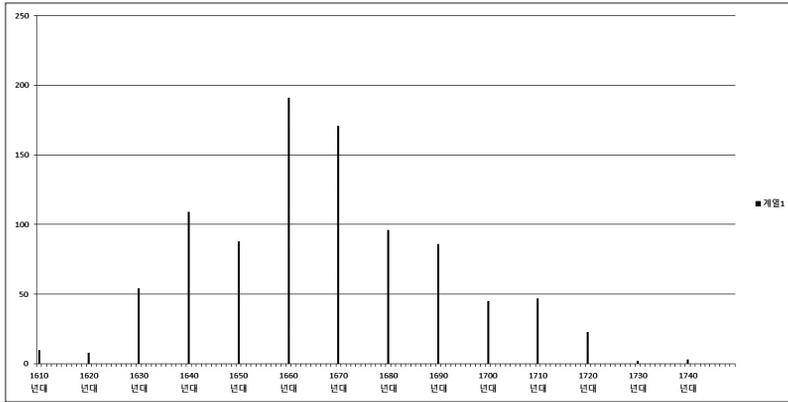
II. 구무의 시기별 전개과정과 그 특징

쓰시마의 구무 요청은 국교재개 무렵부터 시작되고 있었는데,

2) 이승민, 「조선후기 對馬島 求質의 개념과 실태」.

3) 김경미, 「17~8세기 대일외교·교역과 매」, 『역사와 세계』 34, 2008 ; 「17~18세기 日本의 朝鮮 藥材 求請」, 『대구사학』 119, 2015 ; 이유리, 「『倭人求請臚錄』에 나타난 조선 서적의 일본 전래」, 『서지학보』 37, 2011 ; 이승민, 「조선후기 對馬島와의 말[馬] 교역과 그 의미」, 『사학연구』 107, 2012 ; 「조선후기 일본과의 매[鷹] 교역과 그 의미」, 『한일관계사연구』 45, 2013 ; 「조선후기 대일 도자교역 실태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81, 2017 ; 하여주, 「조선후기 대일관계 속의 皮物」, 『한일관계사연구』 49, 2014.

4) 이승민, 「조선후기 求質의 전개과정과 성격」,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19.



[그림-1] 연대별 쓰시마의 구무요청 건수

1610~30년대 초반까지는 기록이 드문드문 등장하거나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1630년대 중반 이후가 되면 본격적으로 구무 요청이 들어오면서 구무가 정착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1720년대 중반 이후에는 요청 건수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즉 17세기 초반에 시작된 쓰시마의 구무 요청은 조일후기 대일무역의 거래체제가 정비된 17세기 중반부터 본격화되어 18세기 초반까지 꾸준히 이어지다가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구무의 전개 양상을 쓰시마 구무 요청 건수의 증감을 바탕으로 첫째 조선후기 조일 국교재개와 함께 쓰시마로부터 구무 요청이 시작되는 ‘태동기’, 둘째 1630년대 조일외교 및 무역체제의 정비에 따라 구무가 활성화되는 ‘활성기’, 셋째 조일양국 대외정책에 따른 조일관계의 변화와 무역의 변화·쇠퇴로 인해 쓰시마로부터 구무 요청이 감소되어 가는 ‘쇠퇴기’ 등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시기에 따라 구무의 양상이 어떻게 전개되고 변화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 배경은 무엇인지에 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태동기 : 국교재개기~1630년대 중반

조선후기 구무의 시초는 기유약조 체결 이전에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는 있지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609년부터이다. 이후 163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쓰시마의 구무 요청은 사례가 극히 적거나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조선에서 정묘·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그 사이의 대부분의 기록물들이 소실되어 관련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만약 구무 사례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조선이 임진왜란 이후 대일외교 및 무역 형태를 정비해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일 수도 있다.

한편 쓰시마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비록 기유약조의 체결로 조선과 독점적으로 무역을 행할 수 있었지만, 1635년에 이른바 ‘柳川一件’으로 불리는 국서개작 폭로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쓰시마번주와 그의 가신 柳川家 사이에 세력 다툼이 계속되면서 쓰시마번주가 島内の 세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⁵⁾ 1614~1621

5) 기존 연구에서 ‘先爲致書’로 조선에 보내온 이에야스 국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의는 요네타니 히토시(米谷均)에 따르면 세 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쓰시마가 국서를 완전히 위조했다는 ‘偽造說’, 원래의 국서가 내어졌으나 쓰시마가 이를 고쳐서 조선에 건넸다는 ‘改竄說(改作說)’, 그리고 조선에 최종적으로 건네진 국서마저도 이에야스에 의해 행해졌다는 ‘眞書說’이 그것이다. 요네타니는 이 중 어떤 說을 택하느냐에 따라 “조일 양국의 국교 회복이 쓰시마의 중간 공작의 소산에 불과하며, 양국 관계는 당초부터 어긋난 차질을 내포한 채 진전되었다고 볼 것인가, 또는 양국의 교린관계가 도쿠가와 정권과 조선정부와의 사이의 ‘슴意’ 하에 전개된 것이라고 평가할 것인가 라는 중대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米谷均, 『近世初期日朝關係における外交文書の偽造と改竄』, 『早稻田大學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 41, 早稻田大學 文學研究科, 1996, 21쪽). 이에 대해 민덕기는 이에야스의 국서가 위조나 개찬(개작)된 것이 아닌 ‘眞書’였다는 설을 주장한 바 있다(민덕기, 『임진왜란 이후의 朝·日 講和 교섭과 쓰시마(1)·(2)』, 『사학연구』 39·40, 1987·1989;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의 韓·日관계』, 경인문화사, 2007).

년, 1623~1625년, 1628~1631년, 1633년에는 쓰시마가 구무를 요청한 기록이 없는데, 이 시기는 바로 국서개작 폭로사건의 당사자였던 소 요시나리(宗義成)가 쓰시마번주로 있었던(1615~1657 집권) 때였다.

‘柳川一件’이란 쓰시마번주 소 요시나리와 그의 가신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 사이에서 일어난 세력다툼을 말하는 것으로, 1631년 가게나오가 요시나리로부터 받고 있던 知行과 歲遣船의 권리를 반납하면서 발생했다.⁶⁾ 이에 쓰시마번주는 시게오키를 ‘不臣’으로, 시게오키는 쓰시마번주를 ‘橫暴’로 막부에 서로 고발하면서 막부에서는 이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다.⁷⁾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자행된 국서개작사건이 폭로되었던 것인데, 막부는 이 사건을 통해 對조선 외교체제를 개편·정리하는 계기로 삼았다. 우선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쓰시마번주의 지위를 확립시켜 줌으로써 對조선 외교를 쓰시마번주 소씨(宗氏)에게 일원화시켰다. 그러나 조선통교에 관한 모든 일을 종전처럼 무단히 하지 말고 반드시

6) 야나가와 시게오키가 조선에 파견하고 있던 세견선은 1605년에 사망한 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의 법명을 딴 ‘流芳院送使’와 나중에 副特送使로 이름이 바뀐 2척이었다. 유방원송사는 1622년(광해군 14)에 차왜 겐포(玄助)와 소 도시시게(宗智順) 등이 조선에 왔을 때 이미 萬松院의 圖書를 청하고 또 가게나오가 流芳院의 도서를 청해 조선조정에서 허락했다. 시게오키가 국서개작 폭로사건으로 패한 후 1636년(인조 14)에 쓰시마번주의 청에 따라 그 도서를 회수했다가 1638년(인조 16)에 또 그 청에 따라 발급해주었으나, 얼마 뒤에 送使 자체가 혁파되었다. 부특송사는 원래 受職倭人 가게나오의 사선이었는데, 가게나오가 매년 조선에 직접 來朝하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조선으로부터 圖書를 받아 대신 사자를 보내기를 청하면서 1611년(광해군 3)에 처음 허락된 것이었다. 가게나오 사망 후에는 아들 시게오키가 이어받았다가 1632년(인조 10) 폐지되었는데, 쓰시마번주 소 요시나리가 그 사선의 칭호를 부특송사로 해달라고 청하면서 이름이 바뀌게 된 것이었다(『增正交隣志』 권1, 年例送使).

7) 柳川一件에 관해서는 『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록(柳川調興公事記錄)』(김상준·윤유숙 譯, 동북아역사재단, 2015)에 매우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막부의 사전 지시를 받도록 했다. 그리하여 막부는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직접 취급하는 승려를 그 해 10월부터 교토(京都)의 고산(五山)에서 2년 임기의 輪番制로 쓰시마의 以酏菴에 파견하는 이른바 ‘以酏菴輪番制’를 실시하게 되었다.⁸⁾

따라서 바로 이러한 島内の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쓰시마는 정기적으로 파견하는 연례송사나 무역상인에 의한 교역 외에 비정기적인 구무에 전력을 다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국서개작 폭로사건은 막부의 심리를 거쳐 ‘막부-쓰시마번주-조선정부’라는 외교의 지휘계통을 확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막부의 재신임을 얻은 쓰시마번주는 조선과의 외교·무역에 온 힘을 쏟게 되면서 이후 구무도 활성화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시기에는 사례가 적기는 하지만 주로 말과 같은 금수류를 중심으로 구무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쓰시마에서 말은 1609~1636년 사이에 거의 10차례에 걸쳐 구무를 요청해오고 있었다.

2. 활성화 : 1630년대 중반 이후~1720년대 중반

구무가 처음 시작된 1609년부터 1630년대 초중반까지는 쓰시마의 요청 건수가 거의 없거나 그리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1630년대 중반 이후, 특히 1637년부터 요청건수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1720년대 중반까지 구무요청이 꾸준히 들어와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구무가 정착되고 활발해지게 된 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8) 손승철, 「조선후기 脫중화의 교린체제」,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 - 교린관계의 허와 실 -』, 경인문화사, 2006, 177~178쪽.

첫째, 우선 일본 측 입장에서 보면 국서개작 폭로사건 이후 안정화된 쓰시마 정세를 들 수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이 사건 이후 쓰시마는 독점적으로 對조선 외교와 무역에 전력을 다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17세기 중반 이후 중국 내의 불안한 정세와 일본의 쇄국정책 이후 변화한 무역정책의 영향으로 인해 대청 무역선의 수가 불안정했다⁹⁾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일본으로서는 중국보다는 안정적으로 물품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조선과의 교역, 특히 국가기관이 개입해 편의를 얻을 수 있는 구무의 방식을 선호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약재 구무가 1637년 이후부터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하는데, 일본에서는 1635년 朱印船貿易이 정지되면서 동남아를 통해 약재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자 쇼군이 직접 명령을 내려 南蠻船 이외에 異邦의 상선을 통해 널리 교역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교역루트가 바로 조선이었던 것이다. 1639년 막부에서 기독교금지령을 관철시키기 위해 포르투갈 선박의 입항을 금지시키고 얼마 되지 않아 당시 쓰시마번주였던 소 요시나리(宗義成)는 막부 로쥬(老中)로부터 조선 무역에 관한 명령을 받았다.

우리나라에서는 금년부터 南蠻船의 내항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제부터 일본 국내용 물품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조선은 이웃나라로서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이다. 일본 국내의 소비에 불편함이 없도록 藥種·生絲·絹織物과 그 밖의 물품들을 이제까지 해왔던 것 이상으로 조선으로부터 수입해올 수 있도록 熟望해주었으면 한다.¹⁰⁾

약재나 생사·견직물은 이미 사무역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

9) 大庭脩, 『江戸時代に於ける中國文化受容の研究』, 同朋舎, 1984, 23쪽.

10) 『朝鮮渡銀位御願之通往古銀被蒙仰候記録』(田代和生 著·정성일 譯, 『왜관 - 조선은 왜 일본사람들을 가두었을까? -』, 논형, 2005, 117~118쪽에서 재인용).

는 물품이었다. 비록 구무를 통해 생사와 견직물의 교역이 이루어진 적은 없지만, 약재는 구무품 중에서도 요청 건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던 물품 중의 하나였다. 위와 같은 막부의 명령은 쓰시마 입장에서 보면 사무역의 확대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해당 물품을 더 많이 요청할 수 있는 구무의 기회를 늘릴 수 있는 것이기도 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일본에서는 1639년 요시다 후지에몽(吉田藤右衛門), 이듬해인 1640년에는 우치노 후지베(内野藤兵衛)를 조선에 보내 약재를 교역하고자 하는 의사를 서계를 통해 예조에 전달했고,¹¹⁾ 이후 다양한 종류의 약재가 사무역 뿐 아니라 구무를 통해서도 교역되기 시작했다.

반대로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각기 두 차례에 걸친 왜란과 호란을 겪고 난 이후 명·청 교체라는 북방의 혼란과 아직 조선사회 내부에 일본의武威에 대한 위기감이 남아 있어서 국내의 안정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다. 즉 對중국관계의 변화에 따른 북방의 안전을 외교정책의 최우선으로 삼고 있던 조선에게 그러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본이라는 南邊의 안전이 전제가 되어야만 했던 것이다. 따라서 전기의 왜구문제를 포함해 후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南邊의 안전이라는 대일정책의 기초를 세우면서 쓰시마를 매개로 형성된 일본과의 간접통교체제를 원활하게 이끌어가기 위한 목적에서 쓰시마의 구무 요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둘째, 다른 한편으로 구무의 활성화는 兼帶制의 실시 및 別差倭 제도의 정례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635년 쓰시마의 국서개작 폭로사건 마무리 단계에서 막부는 쓰시마번주 소 요시나리의 對조선 외교교섭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조선 측에 馬上才를 초빙해줄 것을 명령했다. 겸

11) 『倭人求請謄錄』 1冊, 仁祖 17년(1639) 10월 17일; 『倭人求請謄錄』 1冊, 仁祖 18년(1640) 9월 21일; 『邊例集要』 권1, 「別差倭」; 『日鮮通交史』 「藥物貨物貿易を請ふ」, 539쪽.

대제는 바로 그때 에도에 파견되었던 역관 洪喜男이 귀국하던 도중 쓰시마에 들러 쓰시마번주와 새롭게 약정한 교역방식으로, 과거 기유약조에 의해 규정된 연례송사 20척에 매 사선마다 정관의 직함을 가진 使者가 승선하고 있었던 것을 개정한 것이다.

인조 13년 乙亥(1635)에 역관 홍희남이 왕명을 받들고 에도(江戶)에서 誣告를 변론하고 돌아와 쓰시마에 이르러 쓰시마번주 소 요시나리(平義成)를 타일러서 세견선의 액수를 줄였다. 1특송선으로 하여금 2·3특송선을 겸대하게 하고, 제4선송사로 하여금 제5선 이하 17선까지를 겸대하게 하고, 그 料와 魚를 환산한 쌀 및 別幅·求請·陸物·공무역의 대목(公木) 등 한결같이 예에 따라 증여해 주던 물품은 公代官에게 주어서 그로 하여금 들여보내게 했다. 구청 가운데 들어 있는 雜物 또한 그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 쌀로 환산해주어 접대와 연향에 쓰이는 비용을 줄였다. 이것이 소위 兼帶이다.¹²⁾

겸대제는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오는 사송선에 대한 접대형식의 개선책을 제시한 것으로, 조선으로 오는 쓰시마 세견선의 숫자를 줄여서 이들에 대한 접대에 드는 조선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한 것이었다. 기유약조에 규정된 3척의 특송사선 중 제1특송선이 제2·3특송선을 겸대하고 17선의 세견선 중 제4세견선이 제5선 이하 17선까지를 겸대하게 되면서 사자의 도항횟수가 8차례로 감소된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가져오는 교역물품을 결제할 때 예전에는 사선마다 예물과 공무역품을 싣고 와서 그때그때 교역이 이루어졌지만, 겸대제가 실시되고부터는 1년 단위로 왜관의 대관에게 결제해주기로 하면서 사자는 단순히 각 사선에 배당된 진상품과 공무역품의 목록만 지참하면 되는 것이었다. 겸대제의 실시는 쓰시

12) 『增正交隣志』 권1, 兼帶.

마와의 관계에서 외교적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무역거래의 성격이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조선으로 도항하는 사송선은 淸契와 別幅만 소지하게 되어 무역의 임무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무역은 왜관의 대관이 취급하게 됨으로써 외교와 무역의 업무는 분리되었던 것이다.¹³⁾ 이러한 겸대제는 흥희남 귀국 후에 곧바로 시행된 것이 아니라 그 후 수차례의 교섭과정을 거쳐 1637년 5월부터 정례화되었다.¹⁴⁾

세견선의 도항횟수를 줄여 이들에 대한 접대비용의 절감을 도모하고자 했던 겸대제의 실시는 양국 외교·무역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조선에 보낼 수 있는 세견선의 수가 줄어들게 되자 무역액을 확대시키기 위해 쓰시마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만 했다. 그리하여 소군과 쓰시마 변주의 경조사 및 통신사·문위행 등에 관한 외교 관련 업무 등을 해결하

13) 당시 쓰시마는 이 제도의 실시에 대해 조선으로 도항하는 세견선의 숫자가 줄어들게 되어 별로 이득이 되는 제도가 아니라고 하고 했으며(『朝鮮通交大紀』 권7, 寬永 12년조), 裁判差倭로 여러 차례 왜관에 파견되었던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는 그의 저서 『交隣提醒』에서 “겸대송사의 일은 조선과의 은밀한 약속으로서 막부에 알려질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막부에서 물으면 조선에서 원하는 대로 했을 뿐이며, 폐단을 줄이기 위해 수십년간 겸대해 온 것이라고 보고한다면 별다른 일은 없을 것이다(兼帶送使之事ハ、御内證之御約束ニ而、公儀へ相知レ候事ニてハ無之候。しかし御尋有之候時、彼方願ニまかせ弊を省候ため、數十年兼帶ニいたし來候と被仰上候ハ、別事有之間敷候)” 라고 해서 겸대제 실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다시로 가즈이(田代和生)는 이 제도는 당초에 조선이 의도했던 것과는 달리 결과적으로 내실면에서 쓰시마가 행하는 외교와 무역을 분리시켜 넓게는 사무역의 거래를 확대시켜 갔고 조일 통교무역사상 지극히 중요하고 동시에 획기적인 개혁으로서 주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田代和生, 『兼帶の制成立と貿易仕法の改變』,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2, 148쪽).

14) 겸대제는 1637년(인조 15) 5월 특송선 2척·平彦三送使·세견선 13척이 正官 없이 淸契만을 가지고 오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그 공으로 역관 洪喜男·康遇聖·李長生 등이 상을 받았다(『增正交隣志』 권1, 兼帶; 『東萊府接倭狀啓啓錄可考事目錄抄冊』, 규장각도서 No.9764).

기 위해 약조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별차왜를 파견하기 시작했고, 결국 조선으로부터 차왜에 대한 접대를 規例로 인정받게 되었다.¹⁵⁾ 연례송사 뿐 아니라 다양한 목적의 차왜를 파견하게 되면서, 쓰시마에서는 불시의 구무를 통해 섬 내외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기존의 정형화된 공·사무역을 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뛰어난 것들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각 연도별로 편차가 있긴 하지만 쓰시마의 구무요청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는 1660~70년대로, 조선후기 대일무역의 체제가 정비된 17세기 중반부터 본격화되어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는 있지만 18세기 초반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으며 대체로 1720년대 중반 이후 요청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09년 기유약조 체결로 무역의 기본적인 틀이 마련된 이후 1630년대 중반부터 兼帶制가 실시되고 사무역의 거래가 확대되어 가면서 조·일 양국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18세기에 들어서면 서서히 쇠퇴해가기 시작한다. 쓰시마의 구무요청 역시 이러한 시기적 상황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도 언급했듯이 구무라는 것은 공·사무역과 같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쓰시마 측에서 不時의 필요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그때 교역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교역의 빈도가 해마다 일정하지 않고 편차가 있기는 하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쓰시마의 구무 요청건수는 연 평균 6.7건 정도이며 한 해에 요청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1664년으로 37건에 달한다. 1664년은 다른 해에 비해 연례송사가 건너오는 달과 그렇지 않은 달에도 골고루 구무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구무의 특징을 비교적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 해에는 연례송사가

15) 별차왜에 대한 접대는 조선정부에게 “차왜 접대비용이 送使보다 배가 넘어 드디어 무궁한 폐단이 되었다.”고 할 정도로 세견선에 대한 접대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과 폐해를 초래하게 되었다(『增正交隣志』 권2, 差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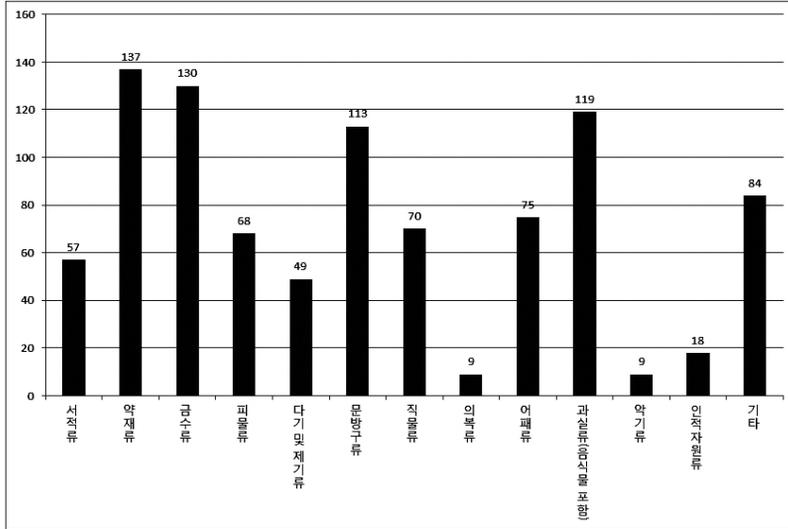
도항하는 1·2·3·6·8월에 구무 요청이 함께 이루어졌고, 연례송사가 도항하지 않는 7·9·10·12월에도 별도의 구무 요청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¹⁶⁾

한편, 품목별로 보았을 때 총 938건의 요청건수 중 100건 이상으로 요청빈도가 가장 높았던 종류는 '약재류(137)-금수류(130)-과실류(119)-문방구류(113)'의 順으로, 이 4가지 품목이 총 요청건수 대비 약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쓰시마 내외에서 이러한 물품에 대한 직·간접적인 필요성이 가장 높았다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막부 측 所用이라고 하는 특수 목적의 금수류는 통신사행과 같은 사절의 禮單으로 지급되었던 말과 매를 제외하고는 다른 형태의 무역으로는 거래가 되지 않는 품목이었다. 따라서 쓰시마의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교역의 편의를 얻을 수 있는 구무의 방식을 선호했던 것이다.

그런데 1680년대 이후부터 1710년대 말까지는 금수류의 구무 요청이 그 이전에 비해 그리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쓰시마에서 요청한 금수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것은 말과 매였는데, 이 시기에는 일본 내의 정치적 사정으로 인해 매의 구무 요청이 없었던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683년(숙종 9)부터 막부 5대 쇼군 도쿠가와 츠나요시(徳川綱吉)에 의한 살생금지령[生類憐みの令]¹⁷⁾의 반포와 그에 따른 일본의 정치적

16) 『倭人求請曆録』 2冊 ; 이승민, 「조선후기 對馬島 求質의 개념과 실태」, 85~88쪽 표 참고.

17) 생명을 가진 짐승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살생금지령을 반포한 쇼군 도쿠가와 츠나요시는 1682년 3월과 12월에 鷹坊 관련자들의 수를 줄여 다른 비상근직으로 이동시켰고, 1693년 9월에는 응방 관련 役職을 폐지하고 매사냥을 완전히 금지시켰다(高橋紀比古, 「鷹匠」, 『大江戶おもしろ役人役職讀本』, 新人物往來社, 1991, 203쪽). 이러한 정책에 따라 막부에서는 쓰시마에 조선과의 매 교역을 중지할 것을 명령했고 1683년 쓰시마번주가 이러한 뜻을 조선에 알려오으로써(『邊例集要』 권8, 公質易 ; 『宗氏實錄』 권1, 「天龍院公實錄」(中)), 현물 매 지급이 중단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기간에 해당하는 1682년과 1711년 통신사행 때도 일본의 요청에



[그림-2] 품목별 쓰시마의 구무요청 건수

사정으로 인해 쓰시마에서는 회사·구청으로 받아가던 현물 매 전량을 쌀과 목면으로 대신 가져가기 시작했다.¹⁸⁾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는 이러한 회사·구청용 매 외에도 별도의 매 구무 요청 역시 증치되어서 사료에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3가지 품목은 공·사무역을 통해서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쓰시마가 구무를 통해 이러한 물품들을 빈번하게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이외에도 쓰시마에서 그만큼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금수류의 교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던 때에도 약재교역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따라 예단 매의 수가 줄어들었고, 조선은 줄어든 매의 수량만큼 대체물품을 지급하게 되었다(『備邊司謄錄』 肅宗 45년(1719) 1월 23일).

18) 「御鷹に付館守裁判方より之書狀」(對馬歷史民俗資料館 所藏, 宗家文庫 記錄類 II, 朝鮮關係 M2).

있었는데, 163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1670년대까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710년대까지도 꾸준히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구무를 통해서도 사무역에서 거래되는 藥劑用의 가공약재 외에 사무역으로는 구하기 힘든 이식용 약재의 교역이 이루어지기도 했으며, 구하기 힘든 약재의 경우에는 사무역보다는 구무의 방식으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밀·녹말·울무·들기름·호두·대추·잣·밤 등의 과실류와 종이·붓·먹 등의 문방구류 교역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 특히 문방구류를 막부에 진상할 때는 물품의 상태를 쓰시마에서 직접 지정해서 요청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黃毛筆은 烏竹·紅糖竹·斑竹 등 각색의 대나무로 자루를 만들고,¹⁹⁾ 붓자루에 용과 같은 특별한 무늬를 조각해 달라고 하는 등의 것이었다.²⁰⁾ 이는 일반 공·사무역을 통해서도 구하기 힘든 上品·極品이기 때문에 국가에 소속된 장인의 손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형태의 물품을 만들어서 교역하기 위한 쓰시마 측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3. 쇠퇴기 : 1720년대 중반 이후

18세기 이후 구무가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淸이 南明과 鄭成功이 장악하고 있던 대만에 대한 대책으로 엄중한 海禁定策을 실시하고 있던 상황에서 일본은 청과 직접 무역을 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1684년 정성공의 손자 鄭克塽이 청나라에 항복하면서 해금정책은 해제되었다. 이에 따라 1685년 이후 일본에 내항하

19) 『倭人求請臚錄』 3冊, 顯宗 10년(1669) 6월 10일 ; 顯宗 14년(1673) 5월 5일.

20) 『倭人求請臚錄』 2冊, 顯宗 4년(1663) 1월 20일.

는 청나라 무역선이 증가하면서 일본의 대청무역의 비중이 이전보다 늘어나게 되었다.²¹⁾ 물론 해금정책이 해제되었다고 해도 일본의 금·은·구리의 수출금지에 따라 무역통제가 강화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약재나 금서류 등 조선에서만 구할 수 있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구무를 통한 대조선교역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임진왜란 이후 戰後 복구사업과 함께 국내 경제와 상업의 발전으로 대일무역도 크게 발달해갔는데, 조일 양국이 교역관계를 발전시켜 나간 것은 대일관계의 交隣的 측면과 함께 양국 정부가 대외교역을 바탕으로 정권안정을 꾀하려고 한 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정책은 특히 조선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1693~99년 2차례에 걸친 울릉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조선의 대일정책은 기존의 회유책에서 강경책으로 전환하게 되면서 18세기 이후 강력한 통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일무역 역시 축소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²²⁾ 특히 구무는 조선 측의 부담과 쓰시마 측의 편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조선에서는 대일 교린과 쓰시마에 대한 施惠의 측면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외교적으로는 간접통교체제 안에서 쓰시마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구무는 쇠퇴해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1) 大庭脩, 『江戸時代における中國文化受用の研究』, 24쪽.

22) 정성일, 「조선후기 대일무역의 전개과정에 그 성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258쪽 ; 울릉도사건과 조선의 대일정책 변화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김태훈, 「肅宗代 對日政策의 전개와 그 성과」, 『한국사론』 47, 2002가 참고 된다.

특히 1720년대 이후에는 구무 요청 자체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시기 쓰시마는 다른 물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수류를 많이 요청하고 있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것은 일본에서 1683년에 반포되었던 살생금지령의 여파로 중지되었던 매 교역이 1717년 이후 다시 부활하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 이 당시의 막부 쇼군은 8대 도쿠가와 요시무네(德川吉宗, 1716~1745 집권)였다. 그는 '매의 무역 요구 여부는 오직 관백의 鷹癖 여부에 달려 있다.'²³⁾고 불릴 정도로 매사냥을 매우 즐겼던 인물로, 5대 츠나요시 쇼군 때 금지된 放鷹 제도를 부활시켰다. 이에 막부에서 쓰시마의 조선 매 교역 재개를 지시했고 쓰시마에서 이러한 사실을 조선에 알려오게 되면서²⁴⁾ 매 구무도 다시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무렵부터는 이전과는 달리 海東靑이나 송골매와 같이 비교적 희귀한 품종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해동청은 1675년(숙종 1)에 역관 韓僉知를 통해 일본에 건너가 쇼군에게 바쳐진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그때 해동청의 모습을 그림과 기록으로 남겨두도록 했다. 1719년(숙종 45)에는 이 그림과 기록을 통해 해동청이 조선에서 건너온 것을 알게 된 쇼군이 쓰시마에 지시를 내려 조선 측에 해동청의 구무를 요청하도록 했고,²⁵⁾ 쓰시마에서는 1720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해동청

23) 『倭人求請謄錄』 8冊, 肅宗 42년(1716) 11월 27일.

24) 「御鷹に付館守裁判方より之書狀」(對馬歷史民俗資料館 所藏, 宗家文庫 記錄類 II, 朝鮮關係 M2); 「御獻上御鷹之事」(『分類紀事大綱』 2기 편찬본, 韓國國史編纂委員會 所藏, MF0000752).

25) 「海東靑并鶻隼之事」(『分類紀事大綱』 2기 편찬본, 韓國國史編纂委員會 所藏, MF0000754).

海東靑与申大ナル鷹, 公儀御用ニ付, 來子ノ年中御求被成, 被差上候様ニト被仰出候由, 江戸表より申來候, 右海東靑之儀, 延寶三年, 譯官韓僉知渡海之節致進上, 其節繪圖并記文等被仰付置候付, 令吟味候處, 朝鮮之土産ニ而, 常ニ朝鮮人茂獵之節相用逸物ニ而候段, 略相記有之候, 公儀より今度被仰出候故, 被成御才覺可被差上候

과 송골매의 구무를 조선에 요청해왔던 것이다.²⁶⁾

III. 주요 구무품의 교역현황과 그 특징

『春官志』求講조의 설명에는 다음과 같이 쓰시마에서 요청하고 있었던 수많은 물품의 종류들이 대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왜인이 요청하는 것은 길짐승은 좋은 말·鹿獐·白羊·다람쥐(栗鼠)·날다람쥐(鼯鼠)·토끼·노새·돈피·고슴도치·웅피(熊皮)·청서피(靑黍皮)이고, 날짐승은 피꼬리·두루미(野鶴)·매(鷹)·새매·독수리·까치·흰 까마귀·흰 거위·원앙새·제비·메추리 가죽·죽조(粥鳥)·학란(鶴卵)이고, 벌레 종류는 도마뱀이고, 실과는 호도·잣·대추·앵두이고, 화초는 오색 모란·연뿌리·삼씨이고, 어류는 붕어이고, 걸곡식은 녹두가루, 서적은 五經·四書의 大全·朱子大全·十三經注疏·退溪集·東醫寶鑑·東文選 등으로 이루 다 기록할 수 없으나, 楊誠齋集·五經纂疏·文體明辨·周張全書·文章辨休·小學字訓·呂東萊續事紀 등의 서적 같은 것은 우리나라에 없는 것이므로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器用雜物은 磁器·紅氈·帶鉤·石玉·石鱗·玉帶·絲帶·祭器·樂器(제기·악기 두

間, 於其元被遂吟味相調可被申候, 併譯官進上之節, 御丁寧二繪圖記文等被仰付置たる事二候得者, 先ハ珍敷品与相聞候間, 彌朝鮮之土産二而容易二相調不申, 内々ニ而御才覺難被成首尾二候ハハ, 東萊江被仰達, 御求被成候筋二茂可罷成候得共, 畢竟ケ様之品東萊江被仰達御求被成候段, 好ミ不申事候間, 隨分於其元被遂相談, 内々ニ而相調被差越候様ニと存候間, 其元之勢等被承合, 早々可被申越旨, 館守へ申遣ス.

26) 『倭人求講曆錄』 8冊, 肅宗 46년(1720) 5월 15일; 景宗 원년(1720) 윤6월 10일; 景宗 3년(1723) 9월 9일; 景宗 4년(1724) 1월 26일; 『邊例集要』 권12, 求質.

가지는 日光致祭條에 보임)·북·떡·深衣·縑布·花硯·말안장·燕京의 갑옷(鎧甲)·鞭棍·皮瓶·星糞·杯琰, 기타 求得하기 어려운 비단, 아주 희귀한 唐藥材 및 王羲之·趙孟頫·宋徽宗의 친필 등이었는데, 잡물 중에 배교는 또한 모두 우리나라에 없는 것이므로 허락하지 않았다.²⁷⁾

다음의 [표-1]은 『倭人求請臚錄』과 『邊例集要』 등을 토대로 구무품의 종류를 세분화해서 품목별로 분류한 것으로, 쓰시마의 요청건수가 많았던 순서대로 배열했다.

[표-1] 쓰시마가 조선에 요청한 구무품의 종류

구분	물 품
약재류	人蔘 沙蔘 丹蔘 五味子 決明子 牛黃 熊膽 虎舌 虎膽 虎頭骨 虎脛骨 九味清心元 熟地黃 白朮 蒼朮 黃芩 黃芪 桑寄生 生虎肝 肉蓯蓉 木防己 知母 柴胡 前胡 麻黃 常山 何首烏 白斂 天門冬 升麻 天麻 白頭翁 小薊 貫衆 蒼耳 蒿本 漏蘆 白微 百部 胡黃蓮 薏苡 遠志 威靈仙 白鮮皮 秦艽 商陸 牡丹 郁李仁 大黃 薑薑 藜蘆 辛夷 樗根 白皮 苜蓿 石鐘乳 生地黃 肉從蓉 紫石英 赤芍藥 白芍藥 半夏 葛根 山藥 山茱萸 牛膝 天南星 草龍膽 防風 桔梗 澤瀉 蛤貝 續斷 大薊 補骨脂 漏蘆 白薇 菁蒿 黃藥子 劉寄奴草 豨薟 獨活 羌活 石鱗 羊脛骨 花藥石 白羊石 黑羊石 麝香 百部根
금수류	鷹子 良馬 月羅俊馬 馬上才馬 騾子 黃鶯 生獐 生雕 白羊 禽鳥 穴燕 鷓鷹 野鶴 活蝟 生貂
과실류	胡桃 松子 栝子 房栝子 大棗 黃栗 榛子 菉豆末 白胡麻
문방구류	眞墨 玳瑁筆 黃毛筆 咨筆 畫龍筆 烏竹筆 紅糖竹筆 斑竹筆 桃花紙 草注紙 小油紙 色蠟紙 色紙 紬紙 灑金翰林風月 洒金翠雲墨 大節墨 雨傘紙 油菴
어패류	乾大口魚 黃大口魚 鯉魚 文魚 鮒魚 子安貝
직물류	白照布 白苧布 細苧布 紅氈 蠶絲 大金綿 生照布 大線段 宮綉 大紗 白紗路 無紋紫色入染紗

27) 『春官志』 권3, 求請.

피물류	黃毛 青鼠毛 虎皮 豹皮 羊皮 熊皮 有毛熊皮 黃狗皮 赤犬皮 貂皮 唐貂皮 魚皮 山鼠皮 黃獾皮 青麥皮 占察皮
서적류	四書大全 五經大全 性理大全 朱子大全 朱子語類 朱子節要 朱子書節要 朱子年譜 易學啓蒙 史記評林 論語 孟子 中庸 春秋 大學章句補遺 孟子集註 庸學集註 諺解武經七書 七書直解 儀禮經傳續通解 大藏經 文韓通考 續文韓通考 東國通鑑 東國輿地勝覽 東文選 退溪集 誠齋集 東坡集 剪燈新話 胡典集解 吏文輯覽 馬醫書諺解本 醫學入門 醫學正傳 醫林撮要 東醫寶鑑 痘疹源論 備急草本 和劑局方 鷹鵠方冊 朝鮮地圖 赤壁賦 王荊公詩集 陸象山文集 文狀辨體 山谷內外別集 李白詩集 杜子美詩集 瀛奎律髓 前漢書後漢書 七書興義 史記 諺光衷四書 諺光衷全書 小學集成 小學字訓 算法通宗 鄉藥集成方 參同契 性理群書句解 攷事撮要 蘇東坡詩集 四書章圖 楊誠齋集 陳后山集 皇華集
다기류	茶碗 器皿 燈籠 沐浴湯器 鐘磬 鍮器 香爐 燭臺 花瓶 紗段香 芙蓉香 白蠟燭 俎 簋 簠 籩 豆
의복류	禮服 深衣 白履 烏襪 條 大帶
인적자원류	匠人 醫官 畫員
악기류	琴 瑟 簫 笛 篳 管 埙 柷 敔 笛竹 鳳簫律管 鳳簫形制笙 大芋 小芋 笙 篳
기타	甲冑 木弓 圓扇子 尾扇 香扇墜 馬省 石帶星 玉帶鉤 錦綉 玲瓏唐鐵 玲瓏鐵鞍 紙砲 唐貨 白蛤皮甲 躑躅 生躑 黃蠟 珊瑚 黃玉石 浮厚石 王蘭亭 十二律 烏竹 磬紅 琥珀珠 越隣香 毛氈 鷹鈴 鷹團粧具 草席 柳筍 條所 挾板 紅袖袱 笏

※ 『倭人求請臚錄』 1~8冊 ; 『邊例集要』 권12, 求貿. 이 표는 한문종의 논문(「朝鮮後期 日本에 관한 著述의 조사연구 - 對日關係 臚錄類를 중심으로 -」, 『국사관논총』 86, 1999)을 기본으로, 기존의 연구에서 누락된 물품들을 보완하고 구분을 보다 세분화해서 작성했다.

이러한 물품들은 쓰시마로 건너가 島內에서 사용되거나 혹은 쓰시마를 경유해 막부 측으로 진상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다.

쓰시마의 구무 요청 건수가 가장 많은 품목은 약재류였다. 1603년 처음 요청이 있는 이후 1630년대부터는 요청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는데, 그 배경에는 일본의 쇄국정책에 따른 주인선무역의 정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이후 1670년대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17세기 후반 이후

부터는 점차 요청빈도 및 수량과 종류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조선 내에서 약재의 공급이 원활해지고 안정화되면서 사무역을 통한 약재 교역이 점차 일반화되었고 구무를 통한 약재 교역은 점차 줄어들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약재류 교역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 한 가지는 藥劑用의 가공약재를 요청하는 것으로 매우 다양한 종류의 약재가 거래되고 있었다. 그런데 요청이 들어오는 대부분의 약재가 식물성이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동물성 약재를 요청해오는 일이 잦아졌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호랑이로부터 추출되는 虎舌·虎脛骨·虎頭骨·虎膽·虎肉·虎爪 등의 귀한 약재 또한 구무를 통해 거래되는 주요 물품이었다.

한편 구무를 통해서도 사무역으로는 구하기 힘든 利殖用 약재의 교역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일본 국내에서 조선 의학에 대한 관심과 수용으로 인해 『東醫寶鑑』 등 조선 의학서적에 보이는 대한 호기심이 높아졌고, 이는 일본 내 本草學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조선으로부터 수입하는 약재의 일본 국산화 욕구로 이어지면서 가공약재가 아닌 이식용 약재의 구무 요청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었다.

약재류와 더불어 조선후기 구무에서 높은 요청빈도를 보이는 품목은 살아있는 동물, 즉 금수류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말의 요청이 가장 자주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말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馬政의 대상이고 몸집도 크기 때문에 사실상 사무역을 통해 거래되기는 힘들어서 구무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졌다. 쓰시마에서는 1609년부터 1729년까지 120년 동안 62회, 대략 120여 필의 말을 요청해왔는데 이것은 요청수량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을 경우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의로 1필로 계산하면 총 140필 이상이 된다. 1630년대와 1640년대에 전체 요청횟수의 약 절반, 전체 요청량의 30% 정도가 집중되어 있었고 이 시기에는 거의 매년 교역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시기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기는 해도 쓰시마에서는 시기상의

단절 없이 꾸준히 조선에 말을 요청했다.

쓰시마 측에서 꾸준히 말 교역을 요청했던 것은 기본적으로 무사 집단으로 이루어진 막부 측의 말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중세 이래 무가사회가 형성되고 잦은 전투로 인해 騎兵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군사력으로서의 말 생산과 관리가 매우 중시되었다. 그러나 근세에 들어 에도막부가 수립되면서 평화시기가 지속되고 軍用馬의 필요성은 줄어들었지만, 무사의 지위를 나타내기 위한 말의 수요는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에도막부에서 다이묘와 막부 家臣 등 무사를 통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령인 武家諸法度²⁸⁾의 가장 첫 항목은 ‘문무궁마의 길, 오직 즐겨야 한다(文武弓馬ノ道, 專ラ相嗜ムベキ事).’는 것이다. 그 정도로 武藝를 중시하는 무사 집단 막부에게 말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이며,²⁹⁾ 조선말은 말 자체에 대한 관심과 함께 무사 및 막부의 지위를 나타내는 상징의 하나였던 것이다.³⁰⁾

일본말 개량을 목적으로 조선산 말 외에 獐馬나 胡馬 등의 중국말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중국말은 조선말에 비해 요청횟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28) 武家諸法度は 2대 쇼군 도쿠가와 히데타다(德川秀忠) 시대인 1615년에 최초로 공포되었고 이후 5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29) 임경택 외, 『세계의 말 문화 III - 일본 -』,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11, 89쪽.

30) 그에 따라 쓰시마 측에서 요청한 말의 종류는 매우 다양했다. 月羅馬·加羅馬 계통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시 털의 빛깔과 얼룩 모양에 따라 斑雄馬·赤多月羅馬·雙倉月羅馬·加羅月羅·靑加羅月羅·騮月羅·騅月羅·靑加羅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또한 드물긴 하지만 고리는 즉 눈동자 둘레에 흰 테가 둘러 環眼馬 계통의 月羅環眼馬·純色環眼馬 등이나, 나귀·노새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斑雄馬는 얼룩진 무늬가 있는 숫말로, 검은 바탕에 흰 점이 있는 것도 있고 붉은 바탕에 흰 점이 있는 것도 있었다. 赤多月羅馬는 붉은 빛깔의 털에 흰 얼룩이 있는 말, 雙倉月羅馬는 검은 빛깔의 털에 엉덩이에만 흰 얼룩이 있는 말, 加羅月羅는 검은 빛깔의 털에 얼룩이 있는 말, 靑加羅月羅는 검푸른 빛깔의 털에 얼룩이 있는 말이다. 騮月羅는 붉은 빛깔의 털에 갈기가 검은 말이며, 騅月羅는 검푸른 빛깔의 털에 흰 털이 섞인 말로 烏騅馬라고도 한다.

적었고 중국에서도 국외로의 반출을 금하고 있어서 실제로는 교역이 이루어지지 못했다.³¹⁾

말과 함께 구무의 방식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대표적인 동물은 매였다. 매 역시 주소비자층이 막부 측이었던 이유로, 비록 조달과 유통 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조선정부는 일본과의 교린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주요 방편의 하나로 매 교역을 허가하고 있었다. 매의 경우 통신사 및 문위행의 공·사예단품, 회사 및 구청을 통해서도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었지만, 쓰시마에서는 이러한 정기적인 형태 외에도 구무를 통해 수시로 매의 교역을 요청해왔다.

조선 내에서도 매는 기르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잡아 일본에 공급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구무에 의한 매 거래량은 17세기 연례송사 총 지급량인 993連과 비교하면 1/10 정도인 88~89連(실제 지급량은 83~84連)으로 그 수가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나 쓰시마에서는 막부 측에서 원하는 수량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또한 쓰시마번 주 자신의 保身を 위해 매를 사용하기도 했기 때문에 별도로 구무를 통한 매의 교역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쓰시마에서 요청해온 물품 중에는 과실류나 어패류와 같이 음식물의 종류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과실류의 종류는 청밀·녹말·울무·들기름·호두·개암나무열매·대추·잣·밤·꽃감 등이었다. 과실류의 용도는

31) 「獺馬并唐馬御求被成候事」(『分類紀事大綱』2기 편찬본, 國史編纂委員會 所藏 MF0000752); 일본에서 우수한 외국말 수입을 통해 일본말을 개량하는 데 적극적이었던 인물은 도쿠가와 요시무네(德川吉宗) 쇼군이였다. 그는 1725~1737년 나가사키(長崎)의 네덜란드 상관을 통해 27필의 페르시아말을 수입해 일본말 개량에 이용했는데, 결과가 그리 좋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후 페르시아말 수입에 관한 기록은 없으며, 근대 메이지 시대 이후가 되어서야 일본에서의 마필 개량이 국가사업으로서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임경택 외, 『세계의 말 문화 III - 일본 -』, 93~94쪽).

쓰시마 내에서 일상생활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과, 쓰시마번주가 에도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 등이었다. 주로 후자의 경우에 더 집중되어 있는데, 통신사가 일본에 갈 때 에도에서 이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거나 쓰시마번주가 참근교대로 에도에 갈 때 그곳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혹은 참근교대시 막부의 여러 집정 등에게 바치기 위한 목적으로 요청해온 것이었다.

쓰시마가 요청한 구무품 가운데 어패류의 종류나 거래 실적은 그다지 많지 않다. 대구어·잉어·문어·붕어·자안패가 거래되었는데, 나머지 어패류의 경우에는 거래 실적이 극히 미미하며 대부분이 대구어의 요청에 집중되어 있었다. 대구어는 구무가 시작된 초반기에는 거래 실적을 찾아볼 수 없다가 1658년 건대구어 200마리의 요청이 처음 들어온 이래 17세기 후반기로 갈수록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쓰시마에서는 대구어·황대구어·건대구어 중 특히 건대구어를 가장 많이 요청해왔다. 이는 주로 쓰시마번주가 참근교대로 에도에 갈 때 여러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으로, 한 번에 요청하는 대구어의 수량은 최하 300마리에서 최고 4,000마리에 이를 정도로 많았다.

문방구류는 종이·붓·먹 등으로 그중에서도 붓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쓰시마 내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혹은 막부에 바치기 위한 것이었다. 17세기 黃毛筆 구무요청량은 7,775필이고 실제로 거래된 양도 5,525필로 양이 매우 많다. 『倭人求請臚錄』에는 다양한 종류의 붓이 등장하는데, 붓자루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玳瑁筆·紅糖筆·烏竹筆·斑竹筆·龍鞭筆·畫龍筆 등으로 나누어 기록되어 있고, 황모필만으로 나와 있는가 하면 대모황모필·홍당죽·황모필·반죽황모필 등 붓자루의 이름이 상세하게 명기되어 있기도 하다. 황모필 수량은 단순히 황모필로만 기록된 것과 ○○황모필 혹은 ○○황필 등으로 기록된 경우를 합산한 것이며, 붓자루의 명칭만 나와 있어서 정확히 황모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 것이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붓자루의 이름만 명기되어 있는

경우, 즉 대모필·홍당필·오죽필·반죽필·용편필·화룡필은 요청량이 4,350필이고 실제 지급량은 3,650필이었는데, 이 수량까지 합산하면 요청량 12,125필, 실제 지급량 9,175필이 되어 연례송사 거래량보다 오히려 많아진다. 이러한 황모필 역시 주로 쓰시마번주가 에도에서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요청한 것이었다. 眞墨의 경우 막부 측으로부터의 요구에 의해 구무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쓰시마의 구무 요청량은 4,015홀, 조선의 실제 지급량은 2,452홀이다. 쓰시마는 진묵 이외에도 황해도 해주에서 생산되던 질 좋은 먹의 하나인 翰林風月이나 首陽玄精·琴墨·翠雲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서적의 경우 조선에서 서적은 조선전기부터 이미 校書館에서만 취급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발행부수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사실상 개인이 서적을 입수하기란 쉽지 않았다.³²⁾ 이러한 상황은 조선후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일교역에서는 서적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인이 존재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서적 역시 국가를 통한 구무의 방식으로 교역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쓰시마에서 요청한 서적은 유교경전과 의학서적이 가장 많은 종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가장 요청이 많았던 것은 유교경전 중 『四書』와 『五經』이었다. 쓰시마에서는 島内の 필요보다는 막부에서 의뢰했다는 이유를 내세워 서적의 교역을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요청 시에는 조선인 저자를 정확히 알고 있거나 해당 판본의 소재지를 언급하는 등, 조선의 전반적인 출판 사정이나 저서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 개인시문집·역사서·지리서·도교경전·지도 등도 포함되어

32) 『中宗實錄』 권36, 中宗 14년(1519) 7월 18일 己亥; 『中宗實錄』 권44, 中宗 17년(1522) 3월 4일 辛亥.

있었다. 또한 주목되는 점은 『東醫寶鑑』·『醫學入門』·『醫學正傳』 등의 의학 관련 서적을 많이 요청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쓰시마에서 조선의 약재나 의관을 요청한 사실과도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조선의학의 일본으로의 전파 뿐 아니라 양국 문화교류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일본 사회에서 毛皮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소위 '名品'이었고 파격적인 가격의 제품으로 막부 사회와 다이묘 등 상류층 武家에서 진귀하게 여기는 상품으로, 피물의 종류마다 선호도가 달라지기도 했다. 쓰시마에서 가장 빈번하게 요청한 피물은 초피였다. 이는 금수품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무역으로는 수출할 수 없었으며 연례송사선의 회사물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양적인 측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은 양피였고, 호피와 표피는 초피·양피와 비교해 보았을 때 비교적 구무횃수나 구무수량이 많지는 않다. 그것은 일본 무사계층에게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만큼 통신사 예단과 회사를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급받았기 때문이었다.

쓰시마의 피물 구무는 1670년대까지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690년대 후반부터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하며, 18세기 이후에는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것은 17세기 후반 이후 일본의 대청무역의 비중 증가와 함께 중국산 피물의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서 조선산 피물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게 된 것, 조선 내에서 피물의 생산지가 주로 한반도 북쪽에 집중되어 있어서 생산량이 제한적이었고 조선의 청으로부터의 수입량 또한 편차가 심했기 때문에 쓰시마로부터의 요청에 부응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주로 들 수 있다. 또한 18세기 이후 일본에서 나가사키 직교역이 재개되면서 조선을 통하지 않고서도 피물을 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구무를 통해서만 거래되는 또 다른 물품으로 다기류가 있었다. 그런데 구무를 통한 다기류 교역은 다른 물품이 거래되던 방식과는 차이가 있었

는데, 그것은 바로 구무품을 조달하는 과정에 쓰시마가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쓰시마에서 구무를 원하는 물품은 조선에서 생산되는 것, 조선이 중국에서 수입한 것 등으로 조선에서 제작·유통되면서 이미 하나의 완전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에 비해 다기의 경우에는 쓰시마에서 필요한 견본을 직접 가져와 조선의 흙 등과 땀감의 물품, 제작에 필요한 조선의 인력 등을 이용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만들어서 가져가고자 했던 것이다. 즉 다기류 교역의 경우 조선과 일본의 힘이 모두 들어간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639년 왜관요 건설 이후 쓰시마가 조선의 人力과 物力을 이용해 왜관 안에서 다기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조선정부의 절대적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주로 막부 측에서 요청해온 다기를 만들기 위해 쓰시마에서는 필요한 각종 물품을 조선정부로부터 원활히 공급받는 방식으로 구무의 방법을 활용했던 것이다.

한편, 일정한 형태를 지니고 있는 물품은 아니었지만 쓰시마가 구무를 통해 요청하고 있던 것 중에는 특이하게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다. 바로 다기 등을 제작하는 沙器匠, 병을 치료하는 醫官, 그림을 그리는 畫員 등 해당 기술을 보유한 사람을 직접 요청한 적도 있었던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의관의 파견 요청은 다른 사기장이나 화원에 비해 요청 사례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그 이름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통신사나 문위행을 수행하는 의관과는 별도의 파견된 것이어서 그 사례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조선에서는 건국 이래 의학발전을 위해 중국 의학이론을 받아들이고 조선의 약재를 연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한 노력은 조선후기 許浚에 의한 『東醫寶鑑』 편찬으로 집대성되었고, 이후 『동의보감』을 비롯한 조선의 다양한 의학서적과 약재들은 다양한 교역방식을 통해 일본 등으로도 전파되었다. 또한 일본에서는 여러 차례 조선의 의관 파견

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당시 조선의 의학수준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에도막부에서는 17~8세기 조선 의학의 발달에 큰 자극을 받아 이를 도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도 했다. 그러한 노력은 통신사나 문위행 등의 수행의관으로 파견된 조선의관들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했고, 이에 더 나아가서 막부 차원에서 조선의 동식물과 藥材를 조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그만큼 당시 일본에서는 조선의 의학수준 및 의관의 실력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외에 사례나 빈도수는 적지만 구무를 통해 쓰시마가 요청하고 있던 물품 중에는 약기나 의복처럼 특이한 것들도 간혹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역시 막부 측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

IV. 결론

1609년 기유약조 체결 후 쓰시마에서 부산 왜관으로 연례송사와 각종 차왜가 도항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교역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이 다루어졌던 구무의 전개과정과 특징 등을 고찰함으로써 조선후기 조일무역의 특징과 성격을 이해하고, 나아가 조일 양국의 교섭 실상을 새롭게 밝혀보고자 했다.

쓰시마의 구무 요청은 기본적으로는 쓰시마 내의 필요에서부터 기인한 것이었지만, 그러한 필요에는 귀한 물품의 진상라고 하는 쓰시마번주의 保身을 위한 대막부 교섭의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공·사무역으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다양하고 질 좋은 물품을 확보해야 했다. 조선에 각종 물품을 요청한 이유는 전적으로 쓰시마번주 자신에게 있었다

고 할 수 있다. 즉 구무는 외교적·경제적으로 막부를 대리하면서 조선과의 무역을 독점하고 있던 쓰시마가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효과적인 수단 이었던 것이다.

쓰시마는 조선에 요청해서 교역한 물품을 참근교대 때 막부에 가져가 쇼군이나 집정 등에게 접대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막부 내에서 자신의 입장을 세울 수 있었고, 쇼군과 집정 등의 의뢰를 받아 그들이 구하는 물품을 대리자의 입장에서 다시 조선에 요청해왔다. 이를 통해 쓰시마는 막부에게 자신이 조선과 교역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부각할 수 있었고, 조선에게는 조·일관계의 대리자임을 내세우는 동시에 한편으로 교린의 측면을 부각시킴으로써 교역에서 지극한 편의를 얻으려고 했다.

반대로 조선의 입장에서는 쓰시마가 요청하는 물품의 거의 대부분은 그 값을 산정해 공무역품의 대가로 지급하는 공목에서 값만큼 빼고 주거나 사무역으로 직접 거래하기도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크게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문제는 쓰시마가 구무로 요청하는 물품의 양과 빈도수가 지나치게 많았고, 때로는 조선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혹은 조선산이라고 해도 희귀한 물품을 요청하기도 했던 것이다.

조선에서는 동래부사나 역관 등을 통해 이를 거절하도록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쓰시마에서 요청한 수량대로 혹은 수량을 줄여서 교역을 허락했다. 물품은 조선의 해당관청을 통해서, 물품이 생산되는 전국의 각 道를 통해서, 그리고 공적으로 구하기 힘든 것은 사무역으로 통해 왜관으로 집결되었다. 이것은 쓰시마의 입장에서 보면 지극한 편의였지만,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다.

조선이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쓰시마의 구무 요청을 받아들인 것은 쓰시마를 매개로 형성된 간접통교체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은 각각 두 차례의 왜란과 호란을 경험하고 대청관계가 변화하면서 북방의 안전을 우선시하게 되었고, 그 바탕에는 일본이라는 남

변의 안전이 전제가 되어야만 했다. 그러던 중 1635년 일본에서 전대미문의 국서개작사건이 폭로되었고, 이를 계기로 막부에서는 막부 차원에서 외교문서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외교승을 쓰시마 以酩庵에 파견하는 한편, 쓰시마번주에게 대조선 무역 독점권을 부여하면서 외교체제를 새롭게 정비했다. 이제 쓰시마는 조선정부와 일본막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중간자적 입장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을 잇는 유일한 창구는 쓰시마였다. 조선에서는 초기의 왜구문제를 포함해 후기에 들어서도 여전히 남변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정책 목표를 세우면서, 쓰시마를 매개로 형성된 일본과의 간접통교 관계를 원활히 이끌어나가고자 했고, 그러한 방법의 하나로써 구무를 허가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19.11.20. 투고 / 2019.11.25. 심사완료 / 2019.12.09. 게재확정)

[Abstract]

The Gumu(求質)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de between
Japan in the Late Joseon Dynasty

Lee, Seung-min

In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Joseon-Tsushima' and the late Joseon Dynasty, there was a form of trade that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ations between Joseon and Japan. Gumu(求質) was a form of trade in which the Tsushima, which had been authorized by the Bakuhu for the rights of diplomatic relations and trade, asked Joseon to save certain goods because of an unexpected need in his country.

The development process of Gumu in the late Joseon Dynasty can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First, 'the embryonic stage', when the request for Gumu is initiated from Tsushima along with the resumption of diplomatic ties between Joseon and Japan in the late Joseon Dynasty, Second, 'the active phase', in which the Gumu is activated according to the maintenance of the diplomatic and trade system in the 1630s, Third, 'the decline period' of requests for detention from Tsushima due to changes in diplomacy and trade following the foreign policy of both Joseon and Japan. Accordingly, the trade of hundreds of various items, ranging from medicinal stuffs, animals, fruits, writing utensils, fish and shellfishes, textiles, clothing, books, ceramics, human resources, and other items, was conducted.

The Gumu request of Tsushima basically originated from the need in Tsushima. But such a need cannot overlook the aspect of negotiation toward Bakuhu by Tushima-Hanshu(對馬藩主). Tsushima was able to establish his position within Bakuhu by taking the goods he had traded with the Joseon at the time of Sankinkoutai(參勤交代) and using them for entertainment to Shougun(將軍) and others. Tsushima has also asked Joseon again for the goods they seek on behalf of their representatives at the request of Shougun and others. Through this, Tsushima was able to highlight to Bakuhu that he was the only one able to trade with Joseon, and sought to gain extreme convenience in trade by emphasizing that he was an agent for the Joseon Dynasty and a good-neighbor(交隣) on the other hand.

On the contrary, from Joseon's point of view, trade through the Gumu was a certain amount of inconvenience. Nevertheless, the acceptance of Tsushima's continued requests for Gumu can be found in the indirect communication system formed by Tsushima's medium. Joseon experienced two wars, Waeran(倭亂) and Horan(胡亂), respectively, and the relationship with Qing Dynasty(清朝) changed, giving priority to the safety of the north. And based on that, the south safety of Japan had to be the premise. In 1635, however, an unprecedented adaptation case of state letter(國書改作事件) was revealed in Japan. With this in mind, Bakuhu dispatched diplomacy buddhist monk(外交僧), which directs and supervises diplomatic documents at Bakuhu level, to Iteian(以酌庵), while reorganizing the diplomatic system by granting the Tsushima-Hanshu as trade monopoly. Now Tsushima was able to clarify the position of the mediator, which plays a role of

connecting the Joseon government with the Japanese Bakuhu. It is thought that Joseon wanted to smoothly lead indirect relations with Japan, which formed Tsushima as a medium, and authorized Gumu as a way of doing so, establishing an important policy goal of safety in the south even after the latter period, including the issue of Japanese pirates in Early Joseon period.

□ Keyword

Gumu(求質), Commodity trade, Joseon, Tsushima, a good-neighbor(交隣), indirect communication(間接通交)

[참고문헌]

1. 사료

『春官志』 『增正交隣志』 『倭人求請膽錄』 『邊例集要』 『東萊府接倭狀啓
膽錄可考事目錄抄冊』

『中宗實錄』 『朝鮮通交大紀』 『宗氏實錄』 『交隣提醒』 『日鮮通交史』

「御鷹に付館守裁判方より之書狀」(對馬歷史民俗資料館 所藏, 宗家文庫 記
錄類 II, 朝鮮關係 M2)

「御獻上御鷹之事」(『分類紀事大綱』 2기 편찬본, 韓國國史編纂委員會 所藏,
MF0000752)

「獐馬并唐馬御求被成候事」(『分類紀事大綱』 2기 편찬본, 國史編纂委員會 所
藏 MF0000752)

「海東靑并鶻隼之事」(『分類紀事大綱』 2기 편찬본, 韓國國史編纂委員會 所藏,
MF0000754)

김상준·윤유숙 譯, 『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 야나가와 시게오키 구지 기
록(柳川調興公事記錄) -』, 동북아역사재단, 2015)

2. 저서 및 논문

김경미, 「17~8세기 대일외교·교역과 매」, 『역사와 세계』 34, 2008.

_____, 「17~18세기 日本의 朝鮮 藥材 求請」, 『대구사학』 119, 2015.

김태훈, 「肅宗代 對日政策의 전개와 그 성과」, 『한국사론』 47, 2002.

민덕기, 「임진왜란 이후의 朝·日 講和 교섭과 쓰시마(1)·(2)」, 『사학연구』
39·40, 1987·1989.

_____,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의 韓·日관계』, 경인문화사, 2007.

손승철, 『조선시대 한일관계사 연구 - 교린관계의 허와 실 -』, 경인문화사,
2006.

- 이승민, 「조선후기 對馬島 求質의 개념 및 실태」, 『한일관계사연구』 36, 2010.
- _____, 「조선후기 對馬島와의 말[馬] 교역과 그 의미」, 『사학연구』 107, 2012.
- _____, 「조선후기 일본과의 매[鷹] 교역과 그 의미」, 『한일관계사연구』 45, 2013.
- _____, 「조선후기 대일 도자교역 실태와 그 의미」, 『조선시대사학보』 81, 2017.
- _____, 「조선후기 求質의 전개과정과 성격」, 동국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9.
- 이유리, 「『倭人求請謄錄』에 나타난 조선 서적의 일본 전래」, 『서지학보』 37, 2011.
- 정성일, 「조선후기 대일무역의 전개과정에 그 성격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1991.
- 하여주, 「조선후기 대일관계 속의 皮物」, 『한일관계사연구』 49, 2014.
- 한문중, 「朝鮮後期 日本에 관한 著述의 조사연구 - 對日關係 謄錄類를 중심으로 -」, 『국사관논총』 86, 1999.
- 임경택 외, 『세계의 말 문화 III - 일본 -』, 한국마사회 마사박물관, 2011.
- 田代和生 著·정성일 譯, 『왜관 - 조선은 왜 일본사람들을 가두었을까? -』, 논형, 2005.
- 高橋紀比古, 「鷹匠」, 『大江戶おもしろ役人役職讀本』, 新人物往來社, 1991.
- 大庭脩, 『江戸時代に於ける中國文化受容の研究』, 同朋舎, 1984.
- 米谷均, 「近世初期日朝關係における外交文書の偽造と改竄」, 『早稻田大學 大學院文學研究科紀要』 41, 早稻田大學 文學研究科, 1996.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2.